

배합사료가격의 대폭적변동 당분간 없을듯

부원료가격이나 제조경비의 양등요인을 감안, 약간의 거래조건 변동이나 사료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가격변동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배합사료의 대폭적인 변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양계가는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생산조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개 요

11월에 들어와서는 국내외적으로 곡물시세가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며 물량면에서도 그다지 차질이 없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로일터가격 하락에 이어 계란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저생산비 수준으로 육박해오고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계란시세가 유리하였기 때문에 일부 양계가의 말을 빌리면 40%까지 산란하여도 노계를 도태할 필요가 없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인지 3월이후 산란계용 배합사료 공급량이 월간 천톤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구매한 옥수수, 도축지연과 일부 미선적분이 있어 각 사료공장에서는 고정거래선의 사료공급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였고, 양축가들께서는 혹시 배합사료를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배합 사료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줄 생각되나 이와같은 기우는 이제는 끝났다고 본다. 11/20일 이후 명년 1월초순까지 도착될 옥수수가 약 3개월분 사용량이 있고, 현재 도착된 물량으로도 12월 초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1/20현재 국제 곡물시세는 상당히 하락된

선에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 외적 요인의 발생이 없는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전월에 비하여 주요사료 원료중 단백질원료인 대두박, 호박, 채종박 그리고 어분시세가 약간의 고개를 계속 들고 있으나 배합사료 수요가 현재 수준에서는 수급상의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 최근 양계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난 2월에 실시하였던 일시적인 부화중지같은 생산조절은 계란수급의 차질이 없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생산조절이야 말로 난가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양계가 그리고 부화업자가 다같이 협력하여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간혹 일부 야릇한 업자는 때를 놓칠세라하여 동업자가 생산조절을 하는데, 그 그늘에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양계족이 있다면 단호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같은 행사는 모든 부화업자의 단결된 힘의 과시로 실천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매년 반복되는 김장철의 난가하락 타개책 역시 관련업체와의 공동협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권하고 싶다.

2.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기준

한 한국도착기준 C&F 톤당 가격을 보면 <표 1>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옥수수경우 12월 선적분이 11/13일현재 \$ 127, 3월 선적분에 \$ 129, 5월 선적분에 \$ 130로 선물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옥수수시세는 지난해 10~11월에 최고시세인 \$ 190이상을 호가하였다가 차츰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난 6~7월에는 톤당 \$ 119까지 떨어진 때도 있었다. 6~7월에 이와 같이 파격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원인은 1974년도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풍작이었다는 점, 그리고 1975년도의 미국의 옥수수 파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파종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수요의 조속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작황이 아직 악화되지 않고 있어 공급과잉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3년 주기로 오는 소련의 대 한발로 생산예상량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미국에서도 옥수수 주산지대에 일시적으로 심한 한발이 있었으므로 8월에 들어와서는 톤당 약 \$ 30까지 시세가 폭등하다가 10월이후 곡물시세는 차츰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안정되어가고 있는 요인은 9월이후 미국이나 소련의 기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련의 감산현상도 그 상태에서 그쳤으며 일부 긴급한 물량은 어느정도 확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금년도 작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수 있으리 만치 대풍작을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다 수요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여력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수입국가들의 경제적인 사정과 사료수요 감퇴로 수입수요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를 맞이하면서 가격이 약간씩 하락되고 있는 것 같다. 대두박의 경우도 8월에는 12월선 적분에 톤당 \$ 220까지 거래되던 시세가 11/13현재 \$ 190선에서 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소맥의 경우도 8월에는 최고 \$ 182까지 12월 선적분의 거래가격이 형성되던 것이 11/13 현재 \$ 148까지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바 부족 양곡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실정으로서는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다고 보겠으며, 이와같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커다란 가격변동은 없지 않을까 예견된다.

<표 1>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단위 : C/F 톤당 \$

종별 선적분	옥 수 수			대 두 박			소 맥		
	75. 12	76. 3	76. 5	75. 12	76. 3	76. 5	75. 12	76. 3	76. 5
75. 6/13	119	122	124	205	208	210	139	142	144
7/14	119	121	123	215	219	220	165	164	164
8/13	149	151	153	220	217	279	182	186	188
9/11	137	139	141	211	210	212	174	178	180
10/13	138	140	140	205	213	209	169	175	176
10/22	134	137	137	202	203	205	166	164	166
11/3	130	133	134	192	194	196	160	163	165
11/6	130	133	134	194	195	196	157	162	164
11/12	126	129	130	190	190	194	149	154	155
11/13	127	129	130	190	191	193	148	154	154

자료 : 로이터 통신에서

3. 사료곡물 확보현황

11/15 현재까지 구매계약한 옥수수 총 양은

로 도착될 옥수수의 구매가격과 도착예정일 및 도착예정량을 보면 <표 2>에 표시된 바와같이 총 134천톤이 11/22일부터 76년도 1월중순까지 도착될 예정이며 구매단가는 톤당 \$ 126.45

에서 \$139.75 범위내에 속한다. 이와같이 도착되는 물량으로 3월초순까지는 사용가능하리라 보아지는 바 지난 10월에 일시적으로 야기되었던 옥수수 도착지연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양축가 입장에서 사료수급상 차질이나 혹은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우려한 나머지 서로 다투어가며 사료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한편 사료공장측에서는 당초 예정보다 옥수수의 국내도착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기 확보한 옥수수의 적절한 조절로 차질이 없이 모든 거래선에 골고루 공급하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쌍방간의 신경전으로 번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이와같은 현상은 11/5일부로서 완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확보된 물량으로 3월초순까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12월말까지는 3월중순부터 사용할 옥수수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제곡물시세는 항상 고정된 시세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망을 똑바로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다량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가격이 뚝다하여 서둘러서 물량을 구매하고 보면 남의춤에 맞추다가 손해를 보기 일쑤다. 이와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한 자세로 그때 그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소 물량구매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국제시장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대응조치를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배합사료 생산현황

1975. 1~9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전년대비 3.9%가 감소한 96.1%밖에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양계용 사료의 경우는 육추용 배합사료가 전년대비 6.7%, 육계용 배합사료가 15.4%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산란용 배합사료는 6.6%가 감소하여 양계용 전체로 보아서는 1.2%가 감소하고 있다. 월별 배합사료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6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6월 생산량의 일부분은 7월 생산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6월에 배합사료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배합사료 수요가 증가할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사료의 통관제도가 6/30일과 7/1을 시한으로 변경되었으므로 7월분 소요량이 일부 6월에 생산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월분 생산량을 감안하여 6월분 생산량을 추정하고 추정량과 산생산량과의 차이가 나는 물량은 7월 생산분으로 보아 비교검토해 보면 6월 이후 7월까지의 육추사료 생산량은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10월분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따라 가을에 육추가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란제용 사료는 7월 이후 월간 3천톤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계용 사료는 월간 9천톤 수준에서 월별로 약간씩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산란제 사료만이 급격히 월간 3천톤의 비율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계란시세가 비교적 유리하고 사료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노계도태가 급년 가을에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사료효율의 재고를 위하여서도 산란율 40%수준까지 노계를 가지고 있어도 경영이 된다는 아이러니칼한 현상은 과연 좋은현상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10월 이후 계란 시세의 폭락이 매년 타격오는 연례행사로 돌린다면 그만이었으나 그 원인이 산란제 입추수수의 증가에 있는지 또는 노계도태의 지

<표 2> 옥수수 도입예정표

단위 : 톤

도입예정량	선별	C&F 가 격	출항예정	도착예정	도착항
1)	4,999	\$139.45	11/10	11/27	부산
2)	34,923	139.75	10/20	11/22	인천, 부산
3)	37,237	138.75	10/27	12/8	인천
4)	33,000	126.45	11/1~30	12/하순	인천
5)	24,200	126.95	11/1~12/10	76.1	인천, 부산
계	134,359				

자료 : 농협중앙회

연에 있는 것인지를 분석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난가안정을 위하여 부화의 일시중단 등 생산조절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입장에

서 적정수준의 생산조절을 기하여 주었으면 한다.

〈표 3〉

1975년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월	별	양 계 용				양 돈 용	낙 농 용	비육우용	기 타	계
		육추용	산 란 용	육계용	소 계					
75.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3,013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6	9,548	31,054	10,209	50,811	10,582	12,120	1,969	682	76,164
	7	8,288	26,225	9,388	43,901	9,790	10,415	1,871	741	66,718
	8	8,809	29,450	9,048	47,307	10,417	11,679	2,669	1,855	73,927
	9	8,938	32,403	9,578	50,919	10,141	11,991	3,687	1,101	77,839
	계 (A)	70,826	258,849	69,003	398,678	99,540	109,015	24,063	8,971	640,267
	%	11.1	40.4	10.8	62.3	15.5	17.0	3.8	1.4	100
74.	1~9(B)	66,384	277,190	59,824	403,398	140,285	81,756	28,088	12,491	666,018
	%	10.0	41.6	9.0	60.9	21.0	12.3	4.2	1.9	100
	대비 (A/B)	106.7	93.4	115.4	98.8	71.0	133.4	85.7	71.8	96.1

5. 주요단미사료시세

11/15일 현재 서울지방의 주요단미사료 시세를 보면 〈표 4〉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월 동일과 대비할 경우 단백질사료인 대두박, 호마박, 채종박, 어분등 시세가 오르고 주로 에너지사료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및 강류사료시세는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옥수수시세가 계속 안정되고 있는 원인은 사료용 옥수수 도입 가격은 변동되고 있으나 도입 옥수수의 고정단가가 결정되어 항상 동일가격으로 사료공장에 판매하고 차액은 사료가격안정기금에 적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1/15 현재 시세를 전년 동일자와 대비하여 보면 도입옥수수 15.2%, 국산옥수수 21.2%, 임박 6.8%, 호마박 7.7%, 채종박 37.3%, 옥수수배아박 26.0%, 탈지강 9.2%, 소맥피 57.2%, 어분 상품이 9.2%가 각각 앙등하였으며 대두박, 맥강, 어분 중품만이 보합 내지는 하락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옥수수는 도입가격 여하에 불구

하고 계속 동일가격을 유지할 것이나 단백질 사료 원료인 각종 식물성 박류와 어분시세가 보합내지는 약간 강세를 이룰 전망이 없지 않으며 강류, 기타원료 가격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배합사료가격은 국내 단미사료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근소하게 거래조건상의 변동은 있으리라 기대된다.

6. 수급전망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입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양축가 여러 분은 과연 정부에서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나 대두박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1976년도 외환 수급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인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사료도입 계획을 당초 53만톤에서 43만톤으로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이와같은 도입규모의 감소책정은 자연감소추세와 일부 자급사료 증산 이용 및 가축증식 방향조정에 의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 배합사료 생산 추세와 옥수수 사용실적을 감안한다면 1976년

<표 4>

주요단미사료시세

단위 : 원/kg

사 료 명	서울지방도매시세			가격 변동율 %	
	74. 11/15	75. 10/15	75. 11/15	75. 11. 15	
				74. 11. 15	75. 10. 15
옥 수 수 (도입)	69.36	80	80	+15.3	0
옥 수 수 (국산)	82.50	100	100	+21.2	0
대 두 박	127	104	114	-10.2	+9.6
임 박	81	87.50	86.50	+6.8	-1.1
호 마 박	80.75	87	87	+7.7	0
채 종 박	54.25	71.80	74.50	+37.3	+3.8
옥수수배아박	50	60.70	63	+26.0	+3.8
맥 강	41	44.80	—	—	—
탈 지 강	41.20	46.50	45	+9.2	-3.2
소 맥 피	21	33	33	+57.2	0
어 분 (상)	128.25	140	140	+9.2	0
" (중)	110	105	110	0	+4.8

도 사료용 옥수수 수요량은 최소한 5~8 만톤은 족히 증가 하리라 본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사료도입 규모를 축소시킨다면 죽는 것은 양축가라는 사실이다. 사료도입량이 제로가 된다면 배합사료공장 운영이 어렵겠으나 수요량의 몇%만이라도 공급량이 부족하면 양축가의 고통은 불문가지라고 본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진흥시키고 양축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려면 사료도입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확보되어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만 한다.

면에서나 또는 국제곡물추세를 감안하고 또한 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의 운영등 계반사정으로 보아 부원료가격이나 제조경비의 앙등요인을 감안할때 약간의 거래조건변동이나 또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가격변동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배합사료가격의 대폭적인 변동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오니 난가나 육계가격안정을 위하여 입난중지 등 생산조절은 강구하되 소비자에게 피해를주는 일이 없도록 적정수준에서 실행해 줄 것을 권해드리 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확보한 옥수수의 물량 및 가격



三正農苑 (70일雛)

清淨環境에서 完璧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안전하게 輸送.

有名品種—하이섹스, 바브콕, 세이바
 育成方法—初生雛時 샷갓평사 中雛時 노천케이지
 防疫計劃—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發育度—品種別표준체중보증
 輸 送—수송상자, 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중 <단가(70일추=650원)>

三正農苑

代表 李 晤 炯

연락처 : 양지가축약국 56-1938

京畿道廣州郡五浦面陽筏 1里261

성 약 원 55-3177